

# 심상철은 남구 보선... 격전지 되나

## 민주 오차 범위내 접전 준비... 당차원 총력전 민노 "승기 잡았다" 지도부 올인 속 파상 공세

7·28 남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예초 민주당 텃밭인 탓에 민주당 후보의 우세가 점쳐졌지만, 민주당 후보 대 비(非) 민주당 후보 간 양자결로 치달으면서 예상과 달리 격전지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후보 진영과 중앙당 등은 이번 주를 '최대 고비'로 생각하고 중앙당 주요 인사의 지원 유세 등 파상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비상' =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 오차 범위 내 접전 5.2% 정도 앞서고 있지만, 추이를 보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하고 당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19일 비공개회의에서 "인전 계양을 지역만 제외하고는 여론조사 결과 나머지 7개 지역은 안심할 수 없다"며 "당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22일과 23일 1박2일 동안 광주 남구에 머무르면서 장 후보를 지원하는 등 당 차원의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민주노동당 오병운 후보 측이 전 구청장의 일부 조직을 흡수한데다 전라공천에서 탈락한 민주당 후보 조직까지 흡수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민주당과 장 후보 측이 더욱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후보를 돕고 있는 또 광주시의원은 "현재 상태로 가면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며 "남구

가 텃밭인 강 시장과 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인다면 주말을 기점으로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민주당 후보가 수세에 몰리고 있는 것은 지역 내 반발 기류가 높음에도 남구에서 무소속 당선이 두 번이나 이뤄졌고 한나라당 후보가 불출마하면서 양자 대결로 치달고 있기 때문으로 지역정가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한편, 장 후보 측은 이날 "지난 18일 19세

이상 남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장 후보가 39.3%로, 31.9%에 그친 민노당 오병운 후보를 7.4%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여론조사는 (주)데일리리서치가 자동전화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수준 95%에 오차 범위는 ±3.1P이다.

◇민노당, 파상 공세 = 민주노동당과 오병운 후보 측에서는 나름대로 승기를 잡았다고 고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사회통합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2일 동안 남구에 거주하는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한 결과 비 민주당 단일후보인 오 후보가 35.5%의 지지도를 획득해 34.3%를 차지한 장 후보를 1.2% 차로 우세를 보였다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P이다.

또한, 오 후보 측은 민주당을 제외한 야권 단일 후보인데다 이미 2만5000여 표 이상을 모은 상태라며 신세를 전망하고 있다. 투표율을 30% 내외로 가정할 경우 남구의 실질적인 유효 투표수가 4만~4만2000표인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노당 이정희 대표와 강기갑 전 대표 등 민노당 지도부가 남구에 '올인'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전국의 당원이 대거 선거전에 뛰어들어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주에는 국민참여당 유시민 전 장관까지 남구를 방문해 오 후보의 지원 유세를 펼치는 등 선거일까지 '고비'를 바짝 조일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4대강 사업중단을 위한 야당 대표회동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연합뉴스

## 野4당 '4대강 검증 특별위' 구성

### 야당대표-광역단체 연석회의 추진도

민주당 등 야권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정세균, 민주노동당 강기갑, 진보신당 노회찬, 국민참여당 이재정 등 4개 야당 대표들은 1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4대강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과 야당 및 국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청와대에 촉구했다.

야당 대표들은 이어 국회 차원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 4대강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2009년 4대강 예산의 집행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2010년 예산 심의에서 4대강 예산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야당 대표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야당 대표 및 광역단체 연석회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석회의 추진을 위해 현장 중심으로 현지 광역단체장과 야당 대표 연석 회동이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적으로 낙동강 현지에서 김두관 경남

도지사와 야당 대표 회동이 상사될 예정이다.

야당 대표들은 또한, 각 당이 4대강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야당 간 상시적 협의를 통해 정부의 4대강 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끌어당기고, 안상수 대표가 밀고, 이재오 후보가 전도사 역할을 했던 공사"라며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대통령이든 야당 대표든 한나라당 후보든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홍준표·서병수 최고위원 등 당에 쓴소리

# 한나라 쏠대 여진은 '진행형'

### "당화합 위해 친이 강경파 배제"

한나라당이 7·14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부를 새로 구성했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전대 차점자로 '안상수 대표 때리기'에 나서며 비주류 역할을 자처한 홍준표 최고위원이 연일 안 대표를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는 특히 19일 친이(친이명박)계 강경파의 당직 배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당 서민정책특위의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부자정당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서민정당으로 바꾸는 게 당의 살 길"이라며 수용했지만 쓴소리를 이어갔다.

홍 최고위원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당대회 결과에 승복한다"면서 "하지만 한나라당은 변화와 개혁보다 늘 안정을 선택했지만, 지금의 안정은 안정이 아닌 과거로의 회귀이고 현실안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홍 최고위원은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비주류·변방 정신이고 마이너리티의 치열함"이라며 "보수개혁론을 기치로 들고 당 개혁을 위해 신보수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안 대표는 20% 지지를 받았지만 80%의 민심·당심은 변화·화합을 원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당 화합을 위해 친이 강경파가 배제되고 해신·중도와 위주, 능력과 가능 중심으로 당직이 개편되기를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나아가 그는 "경선 때 당직역속 금지조항이 있고 이를 위반하면 당직배제 행위가 된다"면서 원희목 의원의 비서실장 기용을 비판했다.

친박(친박근혜)계 서병수 최고위원도 "박근혜 총리론, 개헌론과 관련해 안 대표가 방향성까지 언급했는데 '개인 안상수' 의견과 '당대표 안상수' 의견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밖에서도 쓴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는 이날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후보 간 이진투구, 누구의 가슴을 뽑는 총성경쟁의 장처럼 됐다"며 "한나라당이 이제 야당을 하기로 결심한 모양"이라고 밝혔다.

인 목사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한나라당이 전대에서 집안문제를 갖고 할뜯기를 해 국민의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지경기자 jpkpark@kwangju.co.kr

## "소통 많이하고 여러사람 얘기 들어라"

### 임태희 대통령 실장 첫 비서관회의서 강조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취임 일성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18일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소통을 더 많이 하고 각계각층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대통령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차기 청와대 운영 방안 및 업무 방향 등에 대해 핵심타회한 토론을 벌였고 차기 비서관급 인선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그는 이어 6·2 지방선거 등을 통해 드러난 민심이 청와대의 대국민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이제 국민과의 소통에 더 노력해야 하고 각계각층 사람들을 만나 많은 얘기를 들어야 한다"며 "국민의 마음을 궁극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임 실장은 또한, 대국민 접촉과 소통 강화를 위한 방법론으로 청와대가 굳이 직접 다룰 필요가 없는 실무는 각 부처에 맡기고 관성적으로 해왔던 회의도 줄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소통'이 집권 후반기 청와대의 키워드가 됨에 따라 조만간 이뤄질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에서 광주·전남지역 출신들의 발탁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현재,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 광주·전남지역 출신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에서 소통의 창구 마련을 위해 지역 인사들이 전격적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5·18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김영진 의원, 협약서 서명

김영진 민주당 의원(서구 을)은 1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유네스코 아프리카 대표인 존 쿠포르 전 가나 대통령과 함께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기록 유네스코 유산등록 협약서에 서명했다.

또한, 한국-가나 의원 친선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과 노벨평화상 후보로 자주 거론되는 등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인권 및 평화주의자로 평가받고 있는 존 쿠포르 전 가나 대통령은 이날 한국-아프리카 협력 강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특히, 존 쿠포르 전 가나 대통령은 오는 9월 G20 정상회의의 참석 이후, 광주를 방문, 광주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조선대학교 강연 등에 나설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모두투이

무안공항출발 전세기 상품안내

캄보디아(앙코르왓)+베트남(하롱베이) 6일 ~~₩ 849,000~~ **₩ 699,000**

- 출발일 : 7월 22일(화), 7월 27일(토), 8월 6일(금), 8월 11일(수)
- 위 상품은 매회 30석 한정선착순 특가상품입니다.
- 무안출발(10:00) ↔ 무안도착(08:00)

- ▶ 상품내용
- 1. 항공료(국제선-국제선) 및 국내선 항공료(무안-서울) 포함
- 2. 여행준비금, 호텔비용(호텔 4성급) 포함
- 3. 여행자보험료 포함
- ▶ 숙박(호텔 4성급)
- 1. 캄보디아(앙코르왓) 2박 3일(호텔 4성급) 1박
- 2. 베트남(하롱베이) 3박 4일(호텔 4성급) 2박
- 3. 국내선(무안-서울) 1박 2일(호텔 4성급) 1박
- ▶ 기타서비스
- 1. 여행준비금
- 2. 여행준비금
- 3. 여행준비금
- 4. 여행준비금
- 5. 여행준비금
- 6. 여행준비금
- 7. 여행준비금
- 8. 여행준비금
- 9. 여행준비금
- 10. 여행준비금

TEL. (062) 385-3355 FAX. (062) 385-3357